

아만다의 시집

어려움과 위기의 때에
힘과 소망과
믿음을 제시하는
영감있는 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후서 5:7

아만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찬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준 하나님의 메신져 였습니다. 그녀는 영감 자체였으며, 자신의 믿음에 대한 간증이었고,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16살때, 아만다는 암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23살의 나이로 사망하기까지 7년간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아만다는 피해의식을 선택하는 대신, 영적이며 용감한 전사가 되었고, 하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안에서 항상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아만다는 믿음으로 사는 삶과, 그녀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친밀한 관계안에서 안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만다의 아름다움은 여러 면으로 보여졌는데, 그중 특별한 것은 시를 통하여 그녀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녀의 능력 이었습니다. 이 시들은 그녀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원한 운명을 알고 삶의 변화에 대한 영감을 주려했던 그녀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녀의 시는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거나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 지라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 넘어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열어 드린다면 우리를 소망과 사랑과 그리고 평화로 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음 페이지 부터의 시들은 그녀의 감정의 다양한 폭의 표현입니다. 그녀의 언어는 그녀가 어려운 시간을 지날때, 심지어 극단적인 어려움 아래서 조차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그 시간동안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이야기 해줍니다. 아만다는 그녀의 시가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그녀가 어디서 힘을 얻었는지 알려주는데 쓰이기 위해 책으로 출판 되기를 원했습니다ㅡ이것은 아만다의 메세지 입니다.

작은 것들

밤에 눈을 감고
모든 꿈들의 맛을 느끼며
단지 그 반짝임을 보기 위해서
당신의 아버지의 눈 속을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바닷가를 거닐며
당신의 발가락 사이의 부드러운 모래를 느끼며
콧등에 있는 작은 주름들 까지 내려오는
사랑하는 이의 웃음을 떠올려 본적이 있나요?

갑자기 반짝이다 밝게 빛나는
혹은 당신의 손바닥의
모든 각각의 복잡한 줄들을 탐색하는
당신안에 있는 빛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밤에 엄마가 이불을 덮어줄 때
엄마의 달콤한 손길을 느끼며
친구들과, 삶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작은 것들에 감사한 적이 있나요?

Amanda Twellman, 1999



축복받은 깨어짐

제 편안한 삶에 만족하며
저는 매일을 살고 있지요
삶을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저의 방법으로 살아가며

제 삶은 보통일 뿐이었어요
주님, 저는 잠잠히 서 있었죠
저의 길을 빨리 걸어 내려가며
당신의 완벽한 뜻을 무시하며

모든것이 무너졌어요
그 어둡고 정신이 번뜩 들던 날
하나님, 전 우는 걸 멈출수가 없네요
모든 것 빼앗아 가지 말아주세요

매일 저는 기다려요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요동쳐요
주님이 저에게 대답들을 주시네요
아버지, 저는 너무 눈이 멀었었군요

저의 완전한 어둠에서
그분은 여전히 저를 가까이 이끄세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계속 불렀단다
하나님, 저는 듣지 않았어요

천천히 저는 잠겨가요
전 매일 밤마다 울죠
주님, 전 당신의 힘이 필요해요
정말 그가 내 곤경을 들으실까?

그때 그분이 저를 들어올리세요
내 등의 먼지를 털어 내며
소망으로
내게 부족한 믿음으로 채우시며

주님, 점점 힘들어지네요
도망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분이 내 옆에 계시니
견딜 힘을 찾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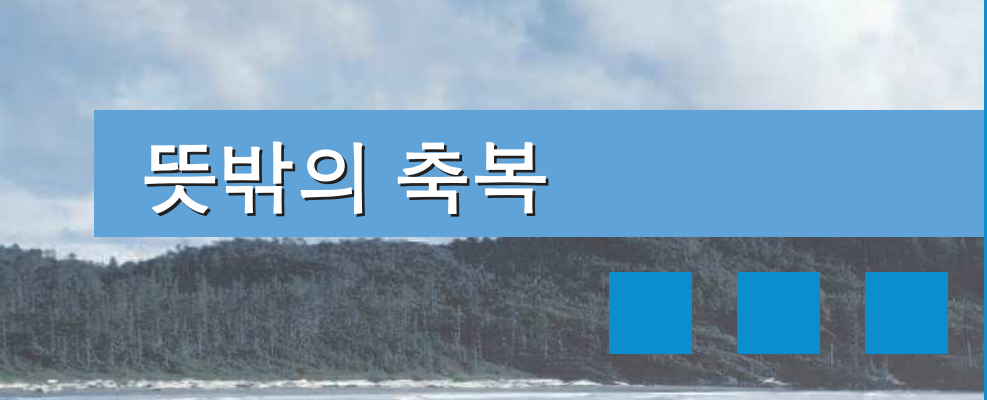
하나님 제가 무릎을 꿇어요
당신이 제 이름을 속삭이시네요
저에게 새 삶을 주셨죠
저는 절대 이전과 같을 수 없어요

당신이 제 마음에 불을 붙이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저를 구원하셨죠
당신의 사랑이 홍수와 같습니다 -
하나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Amanda Twellman, 2002 June



뜻밖의 축복



내 창조주와 얼굴을 마주하는 것
내 눈이 크게 떠지겠죠
나의 새로운 조각들이 생명이 되요
하지만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가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알고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해요
천천히, 발걸음을 내딛으며, 숨을 참습니다
내 뒤에 남겨둔 것들을 한번 슬쩍 보면서요

모든 눈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내가 이제 뭘 할지 궁금해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새로운 것을 주실 때
나는 조금 망설이며 이전 것을 넘겨드려요

새 것이 더 강하고 기쁘고 성숙하네요
내가 꿈 꾸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준비가 되었어
아님 적어도, 그렇게 보이겠지...

가끔 좋았던 지난 시절이 그리워요
잃어버린 순수했던 어린시절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믿음의 쉼으로 바꿔 주십니다
값을 치룰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아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잠겨가는 것처럼 느낄 때
가치 없는 것들에 자리잡으려 시도할때 마다
나는 돌아서서 내 눈을 들꺼에요
내가 기쁘게 해 드릴 오직 한분에게

Amanda Twellman, 2002/11/29

제가 원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매일 밤 무릎을 꿇고
같은 기도로 당신께 애원합니다
단 한가지 대답을 바라며
견디기 불가능한 기다림

마침내 당신이 응답하십니다
부인할 수 없게 명확한
하지만 제가 원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 처음에 두려움으로 가득찼지요

아주 짧은 슬픔
셀 수 없는 눈물이 의심을 따르며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저는 정말 주님이 절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그 때 그분이 내 마음에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보이시죠
나의 계속적인 연약함이 그분의 능력에 영광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경외함에 가득차 서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요
제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고
내일에 대해 완전히 모르지만
그분의 은혜안에서 늘 당당합니다

그래서 전 절대 믿음을 잃지 않을꺼에요
주님이 제가 인내하도록 가르치시니까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저는 기쁨으로 가득찹니다
언젠가 그 영광스러운 날에
그분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알면서!

Amanda Twellman
2003/1/16

더 나은 날

Amanda Twellman

2002/12/29



내 눈을 감고
더 나은 날에 대한 생각들로 흘러갑니다
과거를 추억하고
미래를 꿈꾸며
현재가 아닌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너무 자주 내가 연약하게 느껴져요
지치고
좌절하고
절망하여
포기하고 싶어요
내 미래를 위해 싸우는 것
그것만이
내 머리를 들게 해주어요
하루종일 난 미소를 유지합니다
힘들지 않은 척해요
할 수 있는 한 강하게 있으려 노력해요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모르죠
밤에 내가 혼자일 때
억눌려 있던 눈물을 흘리죠
내 얼굴을 타고 내려와요
난 눈물을 닦으려 하지도 않죠
혹은 참으려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울부 짖습니다
또 내 이전 삶을 돌려달라고 사정해요
모든 사람이 돕고 싶어해요

내 손을 잡아주려 해요
하지만 누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느낌이 어떤지...
내 머리카락은 계속 빠져 나가고
내가 너무 흉해 보여요
내 몸은 내것이 아니에요
내 미래를 계획 할 수도 없죠
내가 너무 약하게 느껴져요
겨우 살아가는거 같아요
내 마음은 아프고
내 눈은 더 이상 울수도 없죠
너무 싫어요
이것이 하는 것들이 싫어요
나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친구들에게
그냥 제발 빨리 끝이 났으면
멀리 가 버렸으면
하나님,그저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 곁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더 나은날에 대한 생각들이
단지 생각일 뿐이지 않은 그 날까지



기도하는 인내



피곤하고 완전히 부서진
폭풍에 깎여진
기도하는 인내로 싸우고 있는
내 믿음은 너무 피곤하고 몹시 지쳤습니다

계속 내 머리를 들기 위해 싸우는 것
결승선이 더 멀어지기라도 한걸 까요?
나의 눈은 고요한 하늘에 질문을 하지만
나의 입술은 기도하기를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의 목적을 위해 나를 만들어 가시면서
나의 믿음은 단련되어 갑니다
갑자기 모든 어두운 구름들에
가득 은빛 선이 그어집니다

더 이상 미래나
내 손을 벗어난 것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과 내 영혼의 상태에 집중 하지요

그리고...

내가 원했던 응답
오래전에 했던 기도에 대한
난 경외함에 싸여 말없이 서 있어요
빛을 맘껏 쪼이면서 말이죠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고
두려워만 하는게 아닌, 감사하는 때에
감격하여 나는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두렵게 또 놀랍게 만들어 졌기 때문에

특권으로서 인생을 사는 것
갑자기 모든것이 이해가 되요
그분이 계획한 것을 기다리며
달콤한 긴장감 안에 미소를 짓습니다

by: Amanda Twellman, 2003/9/1



휘둘리는

바쁘게 정신 없이
매일 그렇게 깨어나는 군요
정말 감사하시나요?
당신은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압도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이
당신의 길에 고난이 다가올때
걱정이 당신을 지배할 수 없어요
만약 당신에게 기도할 믿음이 있다면

미래안에 둘러 싸여
하루를 음미하는 것을 잊곤 하죠
과거는 지났고, 당신은 용서 받았어요
그냥 멈추고, 숨 한번 쉬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고요히 일하는 거에요
그 날을 기다리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그분이 말하시게 될꺼에요

Amanda Twellman
2003/9/18

깨어진 약속

Amanda Dieppa, 2003

모든 것들이 잘 진행 되고 있을 때
제가 완벽한 하루를 보냈을 때
당신을 찬양하는게 얼마나 쉬운지요
그래서 전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서서히 전 당신을 잊어요
"내 힘으로 해낼 수 있어"
공허함이 서서히 들어오고
전 혼자라고 느끼기 시작해요

주님은 한결같이 문을 두드리시지만
저의 마음은 주님을 들이지 않아요
스트레스와 이기적인 죄로 인해
제가 너무 산만해져 있기 때문이죠

제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기에는
전 너무 게으르고 고집이 세요
그 대신 어둠속을 헤메입니다
제가 찾아야 하는 것이 주님일 때에 말이죠

저 스스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은
너무 무거워요, 전 무너지고 넘어지죠
슬프게도, 얼굴이 땅에 부딪히고 나서야
겸손을 배울 수 있었지요

인생의 길은 험하고 거칠게 변하고
저는 너무 끔찍한 하루를 보냈어요
내 길에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화를 낼까?

그러곤 전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영원에 대한 약속을 생각합니다.
그분이 저를 절대 떠나지 않을꺼라 하셨지만
제가 넘어지지 않을꺼라고 약속하신 적은 없죠

제가 불을 지날 때에
그분이 저를 인도하실꺼에요
고난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혼자서는 조금도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멀리도 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을 때
내 가장 어두운 날들을 만나게 될 때
사랑의 신실한 하나님이 저를 살아가게 합니다
끊임없는 찬양에 합당하신 하나님



다 벗겨진

내 모든것을 완전히 중지하고 할말을 잃은채
내 마음은 완전히 부서진 것 같아
인생이 참 안정적이고, 너무도 완벽해 보였는데
내 소망들이 내동댕이쳐지기 전까지는

손이 텅 빈것 같은 느낌만 남은 채
내 믿음은 충격받고 흔들리고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얼어 붙어서
갑자기 벌거벗겨진, 꼭 버림받은 것만 같아

깊은 곳에, 나는 진리를 알아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있다는 걸
하지만 내 일부는 충격에 울부짖기 시작하고
인생이란 그저 공평하지 않은 거니까

나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려 열심히 싸우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난 절망 가운데 무너져서
어둠 가운데 혼자 남겨진거 같아

그러나 믿음의 작은 불빛이
내 생각을 비집고 들어와서
내 과거의 어려움 중 성장한 그 믿음이
계속 단련 되는거야

벗겨지고 완전히 벌거벗은
믿음, 내 손에 유일하게 남은 한 가지
아무것도 필요없음으로 기뻐하기
경주를 끝내고 견고히 서기 위해서

넘치는 잔

이 삶에 너무 지쳤어요
주님, 그냥 포기할수 있게 해주세요
고통을 가져가 주세요
제 잔을 비워주세요

내 영혼의 고통
깊은 곳 안의 잔잔한 울분
홍수같은 눈물을 꾹 참은 채
난 울 수가 없어

인간의 연약함이 나를 점령하고
난 감정으로 인해 눈이 멀어버렸어요
알수 없는 곳으로 빠져드는
삶, 격동적인 바다

내 얼굴, 웃고있는 가면은
속에 있는 것을 배신하고
실망으로 깨어진 내 마음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어

도와주세요, 내 유일한 소망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동일한.
제 안에 있는 빛이
슬픔의 파도에 씻겨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가 꼭 붙잡고 있는 너무도 가녀린 믿음
내 용기는 다 써버린 것 같지만
하지만 난 믿고, 신뢰하고, 기다려요
그 날을...
그가 내 잔을 채워줄 그 날을



Amanda Dieppa
2004/3/3

마음으로 살기

By Amanda Dieppa 2004/3/24

당신 목적없이 거기 앉아 기다리며
삶이 당신을 그저 지나가게 하는군요
나의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것은 아니라 하면서요
왜 아닌지 좋은 이유를 말해줄 수 있나요?

당신은 내 믿음이
작은 목발처럼 도움은 되겠네 라고 말하죠
당신은 쉽게 바보같아 지지 않는군요
증거나 증명, 당신이 만질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해요
그들이 매일 무언가를 섬길 때에는
어떤 모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항상 그것의 방법을 원하죠

당신은 어떤 공허함을 느낍니다
당신의 내면을 너무도 괴롭게 하는
당신은 자기연민에 빠져 있어요
이기적인 교만에 지배당하고 있는거에요

의미없는 것들에 투자하는 것
절대로 영원하지 않을 것들.
당신의 삶을 순복하는 것을 거절하죠
과거에 그로 인해 상처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거절하며
내 믿음에 꼬투리를 잡으며
당신의 대단한 지식으로 살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요



내 믿음은 강력한 촉매제에요
모습에 대한 믿음, 장애물
당신의 인생을 모래위에 짓지요
내가 나의 영원한 반석에 매달릴 동안에요

당신 스스로의 지식에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 이기적인 영혼안으로 빠져 들어갈꺼에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것에 맞춰보려 노력하는 것
공허함 안으로, 하나님 모양의 구멍으로.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세요
목적없고 눈먼 것이에요
교만의 감옥에서 나오세요
그래서 그 날,
하나님이 증거나 증명, 당신이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져 오실 때
뒤에 남겨지지 않을꺼에요.



조건적인 순복

아주 오래, 오래전에
내 삶을 순복했어요
내 단점들을 알게 되었죠
너무도 명확히 기억해요

그 분께 모든 통제를 드리는 것
그의 돌보심에 자신감을 갖는 것
그의 힘에 의지하니
내가 견딜수 없던 무게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째서인지 난 천천히 헤메요
그분의 소중한 시야에서 벗어나
내가 이미 순복한 것들을 다시 가져오며
더 이상은 가볍지 않은 짐을 지는 거에요

끝이 없는 원을 도는 것에 갖혀
이 삶이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해요
나의 계속되는 연약함들, 불완전함들
지긋지긋하고 지쳐버린 나를 떠나갔으면.

그러나 주님은 사랑으로 기다리시네요
그 분은 내 속도를 인내해주세요
또 계속적으로 저에게 확신을 주시죠
나는 절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By Amanda Dieppa 2004/6/16

절망적인 순간

내가 안을 들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
소망 없이 느끼며 슬픔으로 가득차는 거지
내가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난 우울해지고 내일이 몹시 두려워져

만약 이 삶이 정말 시험이라면
너무 형편 없이 망칠까봐 두려워
너무 약하고, 혼란스럽고, 비가 오면 길을 잃는 거야....
그리고 이젠 가차없이 퍼붓는거지

그리고 내가 바닥을 칠 때에는
어떤 이들은 나를 찢으려 하는거 같아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무시하지
완전히 홀로 서서히 잠겨 가는거야



이 절망적인 순간에 갖혀
줄줄 흘러내리는 눈물에 눈이 먼 채
내가 하나님을 올려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분이 나를 이해하시고 듣고 계셔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가족과 친구,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오직 나의 위로가 되는 한 분
이 삶이 끝이 아니야



Amanda Dieppa, 2004/6/18



순간의 알림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한
넘쳐나는 축복들
그중 어떤 하나도 난 자격이 없지만
그의 사랑을 난 느끼고 알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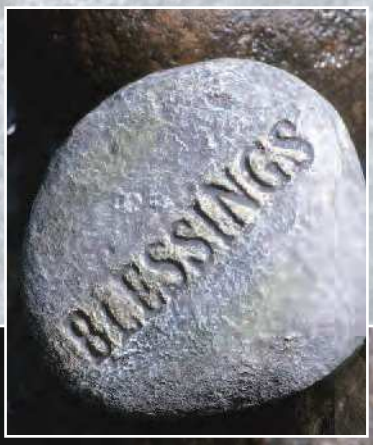
너무 사랑받고, 사랑받고, 사랑받는
그의 별처럼 나도 비추고 싶어요
그는 나를 보시고, 웃으시고, 사로잡으시죠
자녀야, 넌 나의 것이란다!

너무 채워지고, 채워지고, 채워지는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영으로 인해
나는 그의 완벽한 영광을 보며
너무 간절하게 그것을 반사하고 싶어요

너무 평화롭고, 평화롭고, 평화로운
그가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며
그가 복잡하게 계획해 놓으신 삶을 살아요
나의 그 영혼의 디자이너

나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내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매우 특정한 소망에 의해 계속 되는
순간의 알림에 준비가 되었어요

By Amanda Dieppa, 2004/7/14



풍성함

풍성함의 잔잔한 느낌이
내 영혼에 스며든다
내 마음은 더 이상 지치지 않아
완벽하고 온전한 느낌이 들어요

삶의 무가치함
이제 갑자기 바뀌었어
목적의 불타오르는 느낌으로
그리고 난 이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

심지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당신의 계획에 내가 있었죠
나에 대한 사랑의 생각들이
모래알보다도 많으셨죠

그래서 나는 의미있는 삶을 살기 위해 싸웁니다
그리고 덜한 것들을 위해 멈추기를 거부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를 헌신합니다
당신이 나머지를 해주실 것을 기억하며

Amanda Dieppa, 2005/1/24

잠시 동안의 고난들

고난 후에 또 고난
난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고요히 견디고 있어요
삶의 또 다른 시험을

하루 후에 또 하루
나는 싸우고 노력해요
왜냐고 묻는 것 없이
잠시 동안의 어려움들을 마주하기 위해

계절 후에 또 계절
난 높은 곳들과 낮은 곳들을 지나가죠
내가 성공하던지 실패하던지
나의 믿음은 항상 커져가요

시간 후에 또 시간
내 믿음이 미지근해져요
그러면 다시 불이 붙지요
주님이 저를 폭풍 가운데 만나주실 때

승리 후에 또 승리
저는 모든 자랑을 주님께 드려요
지금까지 저의 모든 필요들을
주님이 보셨고 만나주셨죠

AMANDA DIEPPA
2005/2/2



죽지 않는 소망



두려움안에서 숨쉴 수 없이
내 심장이 느껴지지 않아
나만의 꿈들이
산산히 부서지고,
허물어지는 것을 바라 보면서

너무나 똑같은 싸움
수년 간 싸워온
나의 가장 큰 두려움, 현실.
내 유일한 반응, 눈물.

여전히 그리스도안에서 강하지만
모든것이 그분에게 달려 있을 때
내 연약함이 그것을 통과하며 드러난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연약한 순간에
믿음이 발로 걷어찬다
내가 그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알아
바로 그곳이 내가 항상 있어온 곳인 걸

모든것을 가져가 주세요
그 죽음으로 저를 직면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의 그 마지막 숨과 함께

내 삶은 짧고 순식간이에요
하지만 내 소망은 죽지 않지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난 잊지 않을꺼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Amanda Dieppa 2005/2/7

영원히 짐 지워진

이해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인지 주님께 물어보는게 두려워요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는 건가요, 주님
나를 울게 할 정도로 많은 고통말이에요?

내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있고
숨을 쉬기 위해 헐떡 거리며
난 덫에 걸린것 같고
영원히 짐 지워진것 같아요
한 사람이 견디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로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려는
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압박 아래 갇혀서
절망 가운데로 포기해버리죠

내 머리는 나에게 "잠잠하라"고 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속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아픈것에 지쳤어요
그리고 난 절대 이기지 못할꺼라 말하죠

슬픔이 너무 익숙해요
소망은 너무 멀리있는 것 같아요
이 삶으로 인해 너무 무거워요
심지어 기도를 하기도 두려워요



계획이 있다는걸 알지만
그걸 살아 내기가 너무 무서워요
돌아서고 싶어요
그리고 의심으로 포기해 버리고 싶어요

믿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깎아 내릴까봐 두려워요
포기한 사람이 되는게 부끄러워요
너무도 고요하게 난 빠져 들어갑니다



Dieppa
2005/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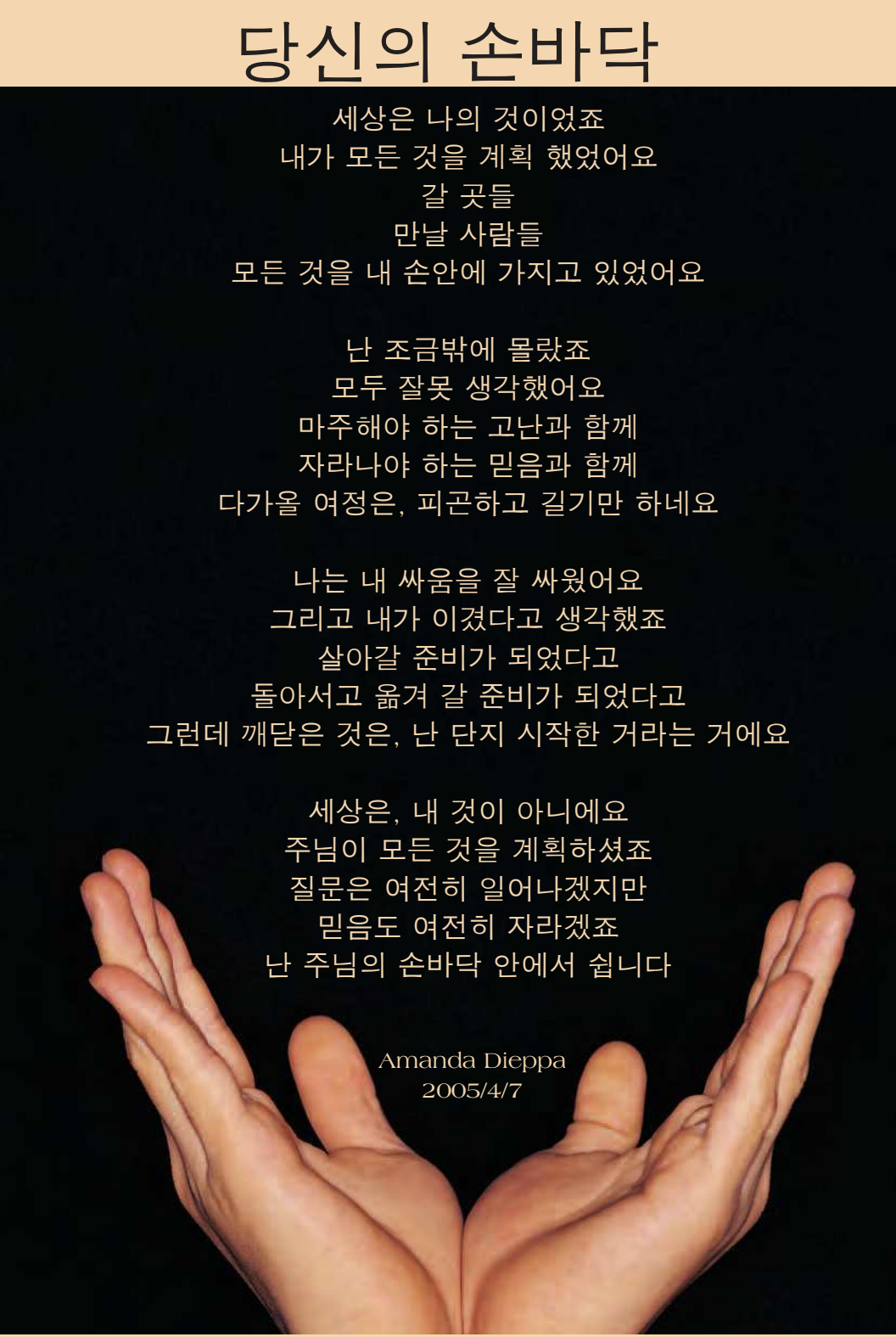
당신의 손바닥

세상은 나의 것이었죠
내가 모든 것을 계획 했었어요
갈 곳들
만날 사람들
모든 것을 내 손안에 가지고 있었어요

난 조금밖에 몰랐죠
모두 잘못 생각했어요
마주해야 하는 고난과 함께
자라나야 하는 믿음과 함께
다가올 여정은, 피곤하고 길기만 하네요

나는 내 싸움을 잘 싸웠어요
그리고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죠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돌아서고 옮겨 갈 준비가 되었다고
그런데 깨닫은 것은, 난 단지 시작한 거라는 거에요

세상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죠
질문은 여전히 일어나겠지만
믿음도 여전히 자라겠죠
난 주님의 손바닥 안에서 쉽니다



Amanda Dieppa
2005/4/7

조각 줍기

내 눈 앞에 내 인생이 섬광처럼 지나가요
내 주변을 살짝 보았어요
내 산산히 부서진 모습의 조각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네요

그것들을 주으려고 노력해요
다시 그 자리로 돌려 놓으려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수치심에 쌓여 거기에 눕고 말죠

내 견고했던 믿음이 드러나는 군요
바로 내 눈 앞에서요
가면을 쓸 시간이 없어요
고통은 가려질 수 없으니까

이전엔 반석처럼 강했는데
난 서서히 무너지네요
아주 조그만 조약돌처럼 작아지고
달려갈 곳도 남아있지 않아요

주님, 깊은 곳에서 주님을 느낍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혼자인것 같아요
이 세상의 고통이
내 영혼을 울고 신음하게 만들어요

조각들을 주워주세요
저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잠잠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내 염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Amanda Dieppa
2005/ 2/ 28

Amanda 를 위한 시
그녀의 여동생 Laura 로 부터



조각을 내려 놓기

언니의 삶이 네 눈 앞에 섬광처럼 지나갈 때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가족안에서 언니의 위로를 찾았으니까.
그 조각들을 이제 내려 놓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 놓으려 하지마,
대신 전화를 들고 내가 그곳에 있어줄 꺼라는걸 기억해,
언니가 마주하는 것들을 돕기 위한 내가.
나야 말로 수치감에 쌓여 누워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적다는 것을 보게 될때 말야.
하지만 난 언니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이 있는지 알아.
언니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했어.
난 언니가 이룬것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언니가 항상 얼마나 강했는지,
언니는 언니가 조약돌처럼 작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나는 뭐란 말이야?
언니 앞에 있는 너무 작은 먼지 알갱이겠지,
언니가 무너졌을 때 그 곳에 있어줄 수 있는.
제발 혼자라고 느끼지 말아줘.
내가 좋은 동생이 아니었다는 걸 알지만,
내가 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고 싶어.
만약 내가 언니처럼 강하다면,
나도 더 나은 돕는자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지.

Laura Twellman 2005/2/28





하나님?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간신히 숨쉬며 눈물을 참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오래 속이면서
내 두려움을 대항해 싸울 수 있을까?

인생은 엉킨 실 풀기 같아요
한 번에 한 가닥씩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난 실 풀기를 시작하고 있죠

난 대답을 찾고 있어요
점점 찾기가 어려워지지만
곧, 아주 곧
완성된 슬픔이 내 것이 되겠지요

난 감사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계속 징징 거리는 걸까?
얼마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괜찮아졌다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금방 변하는지,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거지?
내가 꼭 움켜쥐던 것들을 잃는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는 이 느낌이 싫어.

사단은 뛰어나게 바느질을 하고,
내 삶을 가급적 빨리 뒤엉켜 놓고 있어요
불명확함과 의심으로 바느질하며
내 인생의 경주를 잃어가고 있는거 같죠.

저에게는 주권이 없어요.
꼭 붙잡으려고 싸우고 있지만,
주 예수님 저를 구해주세요
모든 것이 너무 끔찍하게 잘못 되었어요.

일하는 건 거의 견디기가 힘들고
매일의 실망은 계속 다가오고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제 인내는 형편 없네요
조금만 화가 나도 다 그만 두고 싶어요.

갈림길에 서서 혼란스러운 채
어디로 가야 하는걸까?
한 가운데 멈춰서서
실수 할까봐 두려워요.

내 어깨에 있는 이 무게가
꽤 견디기가 어려워요.
빠르게 잠기는 모래에 빠져들며
하나님 거기 계시나요?

내 짐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발, 모두 가져가 주세요.
전 약해지고 있어요 하나님
넘어질까봐 두려워요

내가 물어봤다면 들었겠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될꺼란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인걸요

그래요 주님이 이것들을 가져가세요…
내 눈을 긴장과 함께 감습니다.
저의 기도가 주님께 도달하지 않았나요?
인생은 말이 안되요.

제 모든 걱정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물어봅니다…

"빛이 어디 있는거지, 이 동굴 안에서?"
전 눈이 멀었어요
"만약 주님께 내 억경을 드린다면,
제가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껀가요?"

절망하는건 아무것도 아니야
설명할 수 없는 이 느낌
계속적인 고통의 근원..

내 마음인것 같아,
너무 많이 부서져 버렸어,
내가 내 언니를 이어 받아서,
그리고 운을 맞춰 봐야지.

내 가족들의 마음을 느낄수 있어.
평화를 위한 깊은 갈망
무언가를 위한 매일의 싸움
각각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한숨을 계속적으로 내쉬면,
패배를 말하는거 같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우리 모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지요.

하나님 우린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아시죠
그러나 우린 약간의 대답을 원해요
우리가 견디고 있는 이 고통을 위해서
왜 우리이죠?
왜 지금인가요?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한게 무엇인가요?

대답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통과하겠죠





순결하게 믿음에만 의지해서.

믿음에 의지하는 것은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강하게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믿음은 겨자씨 같아요
그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 필요한 모든 것이고
그리고 제가 가져온 모든 것이에요.

더 많은 것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리고 때때로 그러기도 하죠
저의 손을 그것을 꽉 쥐고 있지만,
모두 빠져나가는것 같아요.

이전에 주님께 울부 짖었어요.
제 마음 깊은 곳의 무거움에 대해서
왜 제가 이 어두움에서 혼자
밤에 주님께 울어야 하는건가요

전 계속 생각해요
머릿속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내 논리의 싸움
그리고 거룩한 질문들.

이런 고민들을 하는 이유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넘어섰기 때문이죠
왜 이런 길 하는 거지?
링 사이를 뛰어넘어 다니는 곡에처럼

주님은 계획이 있으시죠
우리 모두를 위해 디자인 하신.
주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심을 알아요

제가 부를 때 응답하신 다는 것을.

제가 그저 그것들을 듣지 않기로 결정한거죠
그냥 단지 아직은 아니에요.
주님이 카드를 돌리시면
제가 뭘 갖게 될지 두려워요.

주님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저는 비밀스럽게 원합니다.
내 언니를 위한 갈망이죠
절대 끝이 나지 않기를.

저는 이기적으로 원해요
비밀스럽게 기도하죠
언니를 향한 계획이
오늘 끝이 나지 않기를.

주님이 언니가 여기 있기 원하시면 좋겠어요.
아주 오래 오래 동안
주님의 세상으로 언니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저는 언니가 제 세상에 필요해요.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두려워요
만약 주님이 언니의 시간이 끝났다고 하고
저희로 부터 데려가시겠다 하면

바로 그게 제가 가끔 생각하는 거에요
제 마음 깊은 곳으로 부터
연약함의 순간마다
그게 저의 마음을 찢어 놓아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 이기적인 자리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저의 주저함을 봅니다.

간절하게 언니가 남기를 원하는
제가 가진 느낌을 넘어서
하나님이 언니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언니는 이제 괜찮을 테니까.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주님이 언니에게 주실 제가 아는 어떤 것
하지만 그저 새로운 몸을 얻게 되는 것을
뛰어넘은 무언가.
언니가 그것을 위해 태어난 거잖아요.

이것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주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으로 기쁠 것이고
자유롭겠죠
만약 언니가 그 목적에 다다를 기회가 있다면
저는 언니의 영혼을 막지 않을 꺼에요.

우린 무언가 더 나은 것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천국인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죠.
그래서 만약 언니가 반드시 가야 한다면,
제가 언니를 보내줄 꺼에요.
신이 나서 보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녀의 여동생 로 부터





자매의 사랑

사랑하고 잃는 것보다 한번도 사랑해보지 않는게 더 나은걸까? 언니와 함께 할 시간들이 너무 적다는 것을 알면서 내 모든 마음을 감히 다 줄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나의 상처받기 쉬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가깝게 지내지 않는 것이, 그래서 그녀가 내 손을 빠져나갈 때, 내 영혼이 찢어지는 것을 피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일까? 내가 나 스스로를 언니에게 가까이 가게 했기 때문에 이미 너무도 아픈데, 언니가 아픈것을 보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면, 언니가 떠나갈 때는 어떤 느낌이 들까? 언니가 아프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때 언니와 가까와 질까봐 무서워서 도망을 갔었는데, 그때는 슬픔의 치사량을 약하게 하는 것으로 내 자신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언니를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알아가지 않는다면, 언니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중한 순간마다 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후회하게 될꺼라고 누군가가 말했다. 그래서 나는 내 언니를 내 모든 마음으로 사랑했고, 그 이상으로 언니를 더 사랑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밤에 잠에 들며, 내일도 언니를 보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녀의 삶을 더 연장시켜 주셔서 나를 슬픔으로 부터 지켜주실 수 있도록. 내가 한 선택을 인정하며, 상처받을 수 있지만 두렵지 않은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조건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언니와 언니의 고통을 지켜본다. 그래서 언젠가 되돌아 보며 내 마음의 모험을 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도록. 만약 내가 하듯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까지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내가 언니를 사랑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주지 않는다면,
언니를 알지 못한 채 잃게 되는 것의 느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녀의 여동생 로 부터

절대 포기 하지 마



절대 포기 하지마
살기 위한 의지를
네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단다
네가 나눠줄 수 있는게 너무 많아

인생이 어려울 수 있다는걸 알아
그리고 네가 너무 지치는 날들도 있겠지
인생의 짐이
누구라도 넘어뜨리기 충분할 때

이제 주님을 보렴
너의 옆에 서 계시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네 안에 가득하도록 기도하렴

넌 싸워 본 적이 있잖아
너의 두려움을 직면해 봤지
한 번에 하루씩 살면서
몇년을 계속해 왔단다

그러니 너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길의 한 걸음씩
우리가 하루를 이겨낼 때마다
그 승리를 축하하면서.

- 아빠가 :2005/6/20







삶에 의해 소진 된, 목적에 이끌린 삶

넌 삶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지
우리가 왜 이땅에 있는거지요?
분노에 우리는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질렀지
우리의 목적이 그다지 분명하지 않았어

어떤 사람은 그건 여정이다고 하고
시간만이 말해줄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정된 것이라 논쟁하기도 해
천국이거나 지옥이거나.

인생이 잘못 되어 가고 있을 때
혹은 나쁜 일들이 주변에 생길 때
그리스도를 포기할까
아니면 견고한 반석에 서 있을까?

아무도 이것이 쉬울꺼라 약속해 주지 않았어
다른 뺨을 돌려 대는 것이
인생의 어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이
정말로 온유하게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질투와 욕망이
우리의 물질주의를 소비하게 하고
남들이 가진 것을 원하는 것은
사단의 계획의 일부이지

그러니 네가 삶으로 인해 소진 될 때
그리고 그게 시험이라는 것이 걱정 될 때
너의 믿음을 영원히 꼭 붙잡고 있으렴
그리고 쉼에 대해 걱정하지 마.

- 아빠가 : 2005/6/23

계획에 따라서

~ 아빠가 : 2005/02/28





어떤 것일까
고통이 없는 삶
주름이나 얼룩이 없는
영적인 몸

어떻게 애벌레가
고치 안에서 알 수 있을까
자신이 나비가 되어서
파닥거리고 황홀하게 날아갈 거라는 걸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지
하지만 두려움이 나를 자꾸 눈멀게 하네요
거룩한 새로운 몸의
아름다움과 영광으로부터

내 육신의 몸을
그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과 바꿀 꺼에요
그것은 내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계획에 따라서

그러니 내가 왜 두려워 할까
왜 고난 가운데 울까
하나님이 정말 진짜 일까?
인생이 단지 시험인 걸까?

난 기도하고 고민해요
하지만 계속 자라갑니다
주님에게 더 가까이요
그리고 당신의 빛의 따듯함으로





난 긴장되고 또 기대되요
천국에 쌓여 있는 것들을 볼 것이
완벽한 영적인 몸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것들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과 질병의
모든 두려움을 점령하지요

언젠가 우리는 모두 죽어요
모든 아이도, 여자도 남자도
그러니 당신의 삶을 지혜롭게 사십시오
그분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암을 이해하기

아만다 트웰만 디파

나는 나의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나로부터 어떤 것이 떠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이전에도 이렇게 말했었고 지금은 심지어 더 강하게 쥐어잡고 있다-네가 내 사랑과 내 건강과 내 삶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 나는 절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떤것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위한 내 입술의 찬양을 멈추게 할 수 없으며, 어떤 두려움이나 어두움이나 고립이나 깨어짐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사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더 찬양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그분의 말씀과 내 삶을 위한 목적에 둔다. 나에게는 잃을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것을 얻을 뿐이기 때문이다. 내가 정직하게 즐겁게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사랑의 기억을 담아

아만다 미쉘 (트웰만) 디에파

Amanda Michelle (Twellman) Dieppa

1982년 6월 10일 ~ 2005년 7월 19일



더 많은 정보나 여분의 시집을
원하신다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혹은

탐 트웰만 (949) 923-1047

이메일 : ttwellman@cox.net

© Copyright 2012 Korean Translation